여경협 전북, 라오스서 해외경영연수 성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여성기업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경영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라오스에서 3박 5일 일정으로 진행한 '2026 해외경영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여성기업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북지회 회원 60명이 참여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기업 탐방을 비롯해 산업 및 시장 환경 분석,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학습과 교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핵심 일정으로 진행된 기업 탐방에서는 라오스 현지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생산, 금융, 유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코라오 그룹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창업주 오세영 회장으로부터 기업 성장 과정과 현지화 전략,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견학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기회와 위험요인을 함께 살펴보며 각자의 사업에 적용 가능한 전략을 고민하는 실질적인 배움의 장으로 이어졌다.

또한 회원 간 경험과 비전을 나누며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됐고,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완주 한우경매시장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KOSHA, 본부장 이상열, 이하 공단)는 14일 완주군 소재 한우경매시장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합동으로 '축사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3~5월) 축사 지붕 개·보수 작업 증가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에 대비해 축사 사업주 및 관계자의 자율안전 실천을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은 최근 5년간 지붕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61%가 노후화된 채광창(선라이트) 파손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공사와 초단기 작업 특성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질적인 수요자가 모이는 거점에서의 접적인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전주김제완주축산농협 협조로 한우경매시장을 찾아 채광창 덮개 및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등 핵심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전파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축산농가를 위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등 재정지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기도 했다.

/이만호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장수자봉센터와 협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14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등 ESG 전반에 걸친 공동 실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증진(태양광 경관 등 지원 및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 △ESG 경영 확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자원순환 물품 모집 및 폐기물 감축, 아나바다 캠페인 등)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관리 지원 △안전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환경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정기적인 협의와 점검을 통해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속 교류 참여 통한 고미술 활성화

고미술협회 전북지회, 춘계 월례회 · 회원 나눔 경매전

한국고미술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정우)는 2026년 춘계 월례회와 회원 나눔 경매전을 1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동이옥션 아나바다 경매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고미술협회 중앙회 김경수 회장을 비롯해 강민우 수석부회장, 김병주 감사, 장덕진 사무국장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해 전북지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간담회와 월례회, 회원 나눔 경매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아나바다 경매장에서 간담회와 월례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K-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한 문화유산법 개선방안과 관련한 건의 사항이 논의되는 등 고미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이어 오후 1시 30분부터는 회원들이 참여하는 나눔 경매전이 열렸다. 특히 이번 경매전은 회원 간 상생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행사 수익금 전액을 참가 회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다양한 경매 물품과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경매에서는 회원들이 소장한 고미술 작품과 민예품 등을 출품해 서로 나누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전북지회 이정우 회장은 "중앙회 임원진과 함께한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 간 유대와 고미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참여를 통해 고미술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제로타리 3670 지구 '지구대회', 17~18일 개최

전주 그랜드힐스턴 · 김제 실내체육관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전북지역) 로타리안들의 한 해 봉사활동 성과를 결산하는 대규모 행사가 김제에서 열린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오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전주 그랜드힐스턴 및 김제 실내 체육관에서 '지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대회 1일차 일정과 본대회 2일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특히 18일 본대회에는 약 3,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타리안 및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1만여 명의 가족으로 봉사를 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총 82개 클럽, 약 4,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지구대회는 각 클럽이 1년 동안 펼쳐온 봉사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일종의 '봉사 보고대회' 성격을 갖는 이번 행사는 시상식과 축하 행사 등이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제22회 맞는 '초아의 봉사대상' 시상식도 마련된다.

올해 수상자로는 특별대상에 임규래 씨와 대상에 추영곤 씨를 비롯해 특별대상 1명, 사회봉사 부문 2명, 다문화 부문 1명, 효행 1명 등 총 5명이 선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추후 공개된다.

이번 행사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제55년차 대회로 김성희 총재(사진)가 총괄한다.

김 총재는 1999년 로타리에 입회해 28여 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인물로, 서전주 로타리 클럽 소속이다.

해당 클럽은 그동안 총재를 다수 배출한 전통 있는 클럽으로, 김 총재는 네 번째 총재로 이름을 올렸다.

김 총재는 "지구대회는 로타리안들이 순수한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라며 "회원들이 봉사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 로타리는 1905년 미국 시카고에서 폴 해리스와 동료 4명이 창립한 세계적 봉사단체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만 회원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북지역 역시 1957년 전주에서 첫 클럽이 창립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해왔다.

이번 지구대회는 전북지역 로타리안들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전북 지역 봉사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국민연금·폴리텍대학, 중장년 은퇴설계 지원 '맞손'

재취업 교육 · 노후설계 콘텐츠 공동 개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장년층의 체계적인 은퇴설계와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3일 한국폴리텍대학과 산학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은퇴 이후 일자리와 노후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전문역량과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노하우를 결합해 중장년층 맞춤형 은퇴설계 교육과 재취업 지원 콘텐츠를 공동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재취업 기술교육과정 개발과 특화과정 공동 운영에 나선다.

또 재취업 설명회와 상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교육과정 모집 및 홍보 협력, 전문강사 인력풀 상호 제공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의 노후준비 전문성과 폴리텍대학의 직업교육 역량을 결합해 중장년층의 은퇴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 발대식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13일 비즈니스센터에서 '2026 전북 해양수산 창업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추진되며,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미만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역량 강화와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아카데미에는 모집과 평가를 거쳐 총 12개 팀이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8주 동안 이론교육과 그룹·개별 멘토링, 현장실습, 성과발표회 등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단순 강의 중심을 넘어 창업아이템 구체화와 실질적인 시장 진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활용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해양수산 분야 트렌드 분석과 판매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종료 후에는 사업계획 발표와 평가를 통해 우수 수료생 5개 팀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유망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제품·서비스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재경장계초 총동창회 등, 장학금 전달

장수 지역의 교육 공동체에 따뜻한 '내리사랑'의 온기가 퍼지고 있다.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베뉴비안에서 열린 '재경장계초등학교 총동창회 및 장계면 향우회 제35차 정기총회'에서 고향 후배들을 위한 동문들의 각별한 애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계초등학교(장계남초·명덕초·주촌초 포함) 동문과 장계면 출신 향우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재경장계면 총동문회는 타지에서 활동하면서도 모교와 고향을 잊지 않은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장학금을 마련해오고 있다. 장학금 전달 외에도 고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2026 부안댐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발대식

부안군은 지난 13일 상하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부안댐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부안댐 광역상수원 지킴이 13명은 발대식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의 중요성과 자율적인 수질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및 오염행위 예방 등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은 오는 9월까지 상서면 청림리, 변산면 중계리 등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면적 1만6,853㎢) 내 쓰레기 불법 투기, 불법 낚시 및 어로 행위, 축산농가 방문 오염원 적정 처리 여부 등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감시·계도 활동과 맑은 물 지킴이 홍보, 정화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주천면 · 금지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손'

남원시 주천면과 금지면은 지난 4월 13일 남원사회복지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과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복지 자원을 적극 공유하여 위기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생활지원사가 현장 방문 중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즉시 행정복지센터로 보고하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복지 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주요 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특화지원 △퇴원환자 단기지원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보건소-부안해경, 7만보 동행 걷기 챌린지

부안군보건소는 개서 10주년을 맞은 부안해양경찰서와 함께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참여형 생활 건강 행사 '7만 보 동행 걷기 챌린지'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와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부안해경이 뜻을 모아 마련한 공동 프로젝트로 양 기관이 협력해 군민과 해경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 실천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부안해경 직원 및 가족 약 300여명이 참여함에 따라 군민과 생활인구가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 참여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챌린지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기간 내 7만 보 걷기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목표 달성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일상 속 걷기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